



5G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Summer. 2019

5G &
DIGITAL
TRANSFORMATION



Special Theme 5G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06 Column	5G 시대가 물고를 변화
08 Interview	5G, 스마트 팩토리로 제조업의 미래를 바꾸다 스마트제조산업협회 이태진 메타넷글로벌 전무
12 Information	모두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Culture Gallery

16 Finance	은퇴 후 자격증, 무엇이 있을까?
18 Office	사회초년생의 직장 매너 101
20 Taste	여름의 디저트, 아사삭 아이스
22 Travel	휴식에 지식을 더하다 인문학 여행



NOROO People

26 Focus on NOROO I	NOROO의 ESSENCE, 세계를 향하다 Milan Design Week 2019
30 Focus on NOROO II	감정은 컬러풀하다 NOROO × HAPPY INSIDE
34 High Five	온도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고 (주)기반테크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
38 Family Time	한 잔의 DIY, 나를 위한 칵테일 칼라메이트(주) 모바일사업팀 김동식 과장과 친구 강세경 씨
42 Special Store	가족이 다 함께, NOROO와 힘차게 광주노루페인트(주)
46 News Briefing	
50 1 Minute Guide	여름철 냄새와의 전쟁
51 Behind Cut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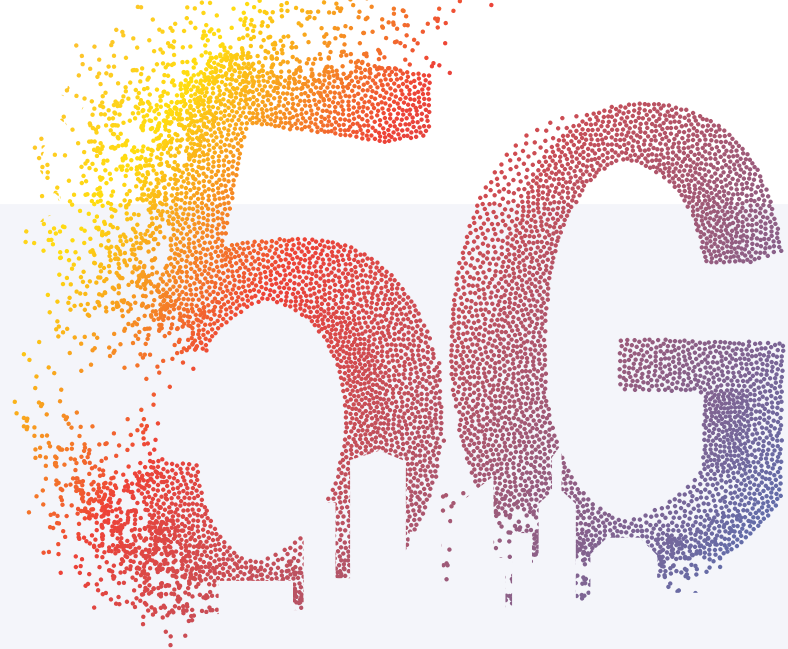
(주)노루홀딩스 인사지원팀 김진환 대리	(주)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차장	(주)노루오토코팅 경영기획팀 안세현 대리	(주)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이용채 대리
(주)노루코일코팅 경영지원팀 문효빈 주임	(주)노루케미칼 경영지원팀 현준 대리	(주)노루알앤씨 경영지원팀 현준 대리	(주)노루로지넷 경영지원팀 오재학 주임
칼라메이트(주) 지원팀 이선희 주임	(주)아이피케이 총무팀 최대섭 차장	(주)기반테크 기획팀 정석찬 대리	(주)더기반 홍보디자인팀 김택수 과장



5G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난 4월 3일,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화 시대에 고속도로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되어 주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발표하며 “5G 팩토리 구축을 지원하여 주력 제조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현장에서 5G라는 통신 고속도로에 올라타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은 물론,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Column	5G 시대가 물고을 변화	06
Interview	5G, 스마트 팩토리로 제조업의 미래를 바꾸다	08
Information	모두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2



5G 시대가 몰고올 변화

서울시 마포구에서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미영 씨는 몇 달 전 자율주행차를 구매하고부터 출퇴근길이 즐거워졌다. 그는 차 안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화장도 한다. 운전은 모두 자율주행차에게 맡긴다. 어제는 퇴근길에 차 안에서 영화를 1초만에 다운로드했다. 스마트폰으로 집의 실내 온도와 공기 상태를 미리 조정해 귀가하자마자 쾌적하게 쉴 수 있었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미영 씨의 어머니는 다음주 중 서울의 관절 관련 전문 의사에게 원격진료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어머니는 미영 씨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의사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 좋구나. 낯설면서도 신기해.”

글 • 김청연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G

‘낯설고도 신기한’ 미영 씨의 일상 이야기는 곧 다가올 미래의 일상 시나리오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5G’가 이런 일상을 만드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 5G란 무엇이고, 우리 일상을 어떤 식으로 바꾸게 될까?

지난 4월 5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일반인 대상의 5G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개통했다. 5G란 ‘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의 줄임말로 5세대 이동통신(규격)을 뜻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의에 따르면 5G는 최대 다운로드 속도 20Gbps, 최저 다운로드 속도 100Mbps인 이동통신 기술이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4G 이동통신 기술인

LTE(Long-Term Evolution)와 비교하면 속도는 약 20배 빠르고, 처리 용량은 100배 더 크다.

5G의 특징은 크게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로 요약된다. LTE의 처리 속도가 1Gbps인 데 비해 5G는 최대 속도가 20Gbps에 달한다. 5G에서는 영화 한 편 다운로드하는 데 평균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스마트폰에서 보낸 데이터가 기지국, 교환실, 서버 등을 거쳐 다시 단말로 돌아오는 지연시간도 매우 짧다. ‘초저지연’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다. 기존에는 수십 ms(밀리세컨드, 1ms는 1/1000초)였던 지연시간이 1ms 수준으로 줄어든 덕분에 과거엔 불가능했던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5G는 최대 연결할 수 있는 기기의 수도 LTE에 비해 10배 이상 많다. 그만큼 수많은 기기와 센서를 활용

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그래서 ‘초연결’이라는 말이 붙었다.

5G 기술의 특징인 ‘초저지연’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게 ‘자율주행차’ 사례다. 지난 3월 12일 LG유플러스와 한양대가 공동 개발한 5G 자율주행차 ‘A1(에이원)’이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빈 후 서울숲 주차장에 도착했다. A1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정체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간격도 잘 유지했다. 물론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 A1이 이렇게 안전하게 달릴 수 있었던 건 5G 망 덕분이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앞에 장애물이 등장해 정지신호가 울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4G 기준으로는 0.81~1.35m를 움직인 후 멈추지만 5G에서는 그 거리가 2.7cm로 줄어든다. 물론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 있지만, 발견→인지→반응까지 걸리는 시간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만큼 사고 발생 확률이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하다.

5G 환경에서는 미영 씨 어머니처럼 여러 사정으로 의사에게 직접 진료나 수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이 loHT(Internet of Health Thing) 서비스를 통해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질병 예방과 진단, 사후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원격진료 사례가 없진 않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근거리에만 한정돼 있었던 반면, 초저지연을 특징으로 하는 5G에서는 통신 끊김 현상이 사라져 원격진료 및 수술이 좀 더 원활해진다. 원격진료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영상 서비스와 만나면 더 꼼꼼하고 정확한 진단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수술 부위는 VR/AR 영상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게 집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5G로 달라질 산업과 직업

한편 제조업계는 5G 기술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제조 시설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결합한 형태의 공장을 말한다. 기존 자동화 시스템의 기계들이 프로그래밍 해둔 대로만 움직였던 반면, 5G 기

반 스마트 팩토리 속 기계는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업 명령을 내리도록 설계돼 있다. 공장 곳곳에 설치돼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계 상태와 공정 진행률 등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5G의 짧은 지연시간은 로봇이 제조 과정의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 불량률을 낮추고 맞춤형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 3년간 생산성 30% 향상, 불량률 43.5% · 원가 15.9% 감소의 성과를 냈다.

5G 시대에는 실감형 영상 콘텐츠도 발달한다. 고화질 VR 영상 중계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실제 경기장에서 보는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VR을 활용해 원하는 위치와 각도에서 경기 장면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만이 아니다. 여행 시 호텔을 예약할 때 현장에 가본 것처럼 실감나는 영상으로 방을 둘러보거나 T커머스(양방향 데이터 홈쇼핑)를 통해 옷을 입은 내 모습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5G 시대 도래로 고민해야 할 것들도 있다. 한 예로 2022년경 상용화 예정인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났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등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한다.

우리 개개인은 5G로 달라질 산업 및 직업의 지형 변화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원격진료 등 5G 기술이 몰고 올 일상의 변화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노동이 그야말로 위기를 맞는 것인가 싶어지기도 한다. 꼭 그런 건 아니다. 5G가 ‘초능력’을 발휘하는 시대라고 해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 예로 초능력을 발휘할 로봇을 생산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지 않은가.

김청연

한겨레 매거진랩 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주간 매체 <위클리 공감>을 만들고 있다. 쓴 책으로 『책으로 노는 집』 등이 있다.



5G, 스마트 팩토리로 제조업의 미래를 바꾸다

스마트제조산업협회 이태진 메타넷글로벌 전무

지난 3월, 정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하며 수소경제와 데이터, AI, 5G의 4대 경제 플랫폼과 미래차, 드론, 스마트 공장 등의 8대 선도사업을 명시했다. 2014년에 시작된 제조업 혁신은 이제 5G와 스마트 팩토리로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는 지금, 제조업이 조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변화의 방법과 방향은 무엇일까.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과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에서 활동하며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정부 과제 수행과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이태진 메타넷글로벌 전무에게 물었다.

Q. 먼저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부터 짚고자 한다. 스마트 팩토리는 무엇이고, 기존의 공장과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

A. 기존 공장도 컴퓨터와 IT 기술에 따라 미리 정해진 작업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스마트 팩토리라 하지는 않는다. IoT, 즉 사물인터넷과 5G와 같은 무선통신기술이 적용되어 공장 설비 자체가 스스로 상황을 인식(Sensing)하고 판단해서 (Control) 실행(Actuate)할 수 있는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 한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단어는 'Intelligent, IoT, Connected' 이다. 산업혁명 역시 통신과 연관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2차는 대량생산시스템, 3차는 컴퓨터, 4차는 CPS(Cyber Physical System)의 출현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통신도 이에 따라 변화하거나 각각의 변화를 촉발한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우표, 2차는 전화, 3차는 인터넷, 4차는 사물과 통신의 일치화, 즉 모든 사물이 스스로 통신하는 기능이 그 특징이다. 결국 스마트 팩

토리의 핵심은 공장 안에 있는 사람과 기계, 생산물(Man, Machine, Product)이 서로 통신하여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 낸다는 데 있다.

Q. 정부가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을 꾸리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는 등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제조업과 스마트 팩토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A. 우리의 일상을 둘러보자. 제조업은 여느 산업보다도 훨씬 큰 비중으로 우리 생활을 구성한다. 전통적으로도 제조업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 성장 원천이었으며 미래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생산은 단순히 제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디자인부터 재료, 배송, 재사용과 폐기에까지 연결된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IoT가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제조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생산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산업이 산업용 사물인터넷으로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보고와 디지털 기술을 만났을 때 가장 큰 가치를 낳

는 산업이 제조업이라는 시스코(Cisco)의 2013년도 연구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고마쓰라는 굴삭기 기업을 예로 들어보겠다. 고마쓰는 디지털 기술을 굴삭기에 접목해 현장에서 운행 중인 제품의 상태와 수명을 체크하고 생산 계획에 반영한다. 고객의 실제 사용 데이터가 제품 개발과 공장 운영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 제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라는 전체 밸류 체인이 스마트 팩토리와 함께 구축된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되기 전인 2014년부터 이미 제조업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결합하여 새로이 성장해야 한다는 제조혁신 3.0의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다. 그 시점에 독일에서도 인터스트리 4.0이 등장했고 스마트 팩토리가 중요한 어젠다가 되었다.

Q. 산업 현장에서의 니즈는 어떤가. 일반인들은 아직 5G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전 속도와 현장의 반응 속도는 다를 것 같다.

A. 2016년만 해도 스마트 팩토리는 낯선 개념이었다. 그런데 점점 이해가 넓어지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면서 현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전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뭐지?’가 질문이었다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로 바뀌었고 서서히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실제로 많은 공장이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를 문의해 오고 있다. 이미 디지털 센서와 데이터 분석이 공장 운영에 활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장의 변화는 이미 현실이다. 현재는 기술자들의 노하우를 알고리즘으로 코딩하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

에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지나 머신러닝이 노하우를 모두 학습한다면 효과는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Q.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기존의 제조업을 대체하는 것만이 아닌 새로운 수익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까?

A. 그렇다. 미쉐린의 경우 타이어에 센서를 장착시켜 소모 정도를 파악, 점검과 수리로 잇는 장비 서비스 사업으로 확장시켰다. 더 나아가 연료를 절감시키는 정보 서비스까지 고객에게 제공한다. 일반 제품에서 디지털 제품으로, 그리고 고객 경험 서비스라는 신규 시장을 만들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목표는 Mass Customization, 즉 개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낮은 원가를 유지하는 제품 개별화 등 맞춤형 대량생산과 생산성 향상이다. 디지털의 발달로 극도로 개인화되어가는 소비 패턴을 위해 기업은 장인이 옷과 구두를 맞추어 내는 것처럼 개인에게 맞춤형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하다.

Q.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될까? 일자리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지 않을까.

A. 일자리가 줄어들기보다는 같은 수의 인원으로 많은 생산량을 내는 ‘생산성’의 방향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D 업종의 일자리는 분명히 줄어들고, 줄어드는 게 맞다. 줄어든 일자리 대신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기업에서 적절한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덧붙여, 노동자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스마

트 워커로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장의 상당 부분이 현장의 설비 고장 때문인데 막상 가보면 별 게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다면 출장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의 탄생은 기계에서 시작되었지만 공장은 기계만 일하는 곳이 아니다. 인간과 공존하고 협업하는 공간이고 서로 보완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Q. 스마트 팩토리에 적합하고 더 빨리 진입해야 할 기업, 혹은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가 따로 있을까?

A. 정답은 없다. 다만 기업이 공장의 현실과 수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장 이상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상상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굳이 말하자면 작업자보다는 기계나 설비의 역할 비중이 높은 공장이 앞서나가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도 스마트 팩토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소처럼 작업자의 기술력과 노동력이 중요한 곳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웬 말이나.”라고도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 워커의 개념도 도입되면서 변화하고 있다.

Q. 이러한 변화를 먼저 준비했던 전문가로서 스마트 팩토리의 발전 속도를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산업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A.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다. 하드웨어나 OT(Operation Technology)에서 오랫동안 실력을 쌓아온 ABB, 지멘스 등 외국 기업은 자사의 노하우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얹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기술의 수준은 외



국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서로의 그룹핑이 약하다. 하드웨어를 가진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과 제휴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정부가 설립, 운영하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앞으로 화학 공업, 전자 부품 공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모델 공장을 늘려 미래상을 가시화하고 교육 기회를 넓혀야 할 것이다. AI를 이용한 생산 계획 및 통제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쓴 것이 30년 전이다. 논문 속의 이론이 생산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보면 벅찬 느낌이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5G는 어떤 식으로 제조 현장에 녹아들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인가. 분명 엄청난 변화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이태진

메타넷글로벌(구 액센츄어 코리아)의 전무로 IT를 통한 업무 혁신, 스마트 팩토리, 모바일, 빅데이터 등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정부 과제 수행 및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아 오피니언 리더로도 활동하고 있다.

모두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왜 우리는 아닌가?” GE의 CEO 제프리 이멜트는 2016년 ‘마인드+머신’의 기조연설에서 질문을 던졌다. 그 뜻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의 실리콘밸리 기업은 세계적 불황에서도 급속히 성장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였다. 그 답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었다. 일찍이 자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은 GE는 디지털 제조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 위의 질문이 유효한 기업은 많다.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지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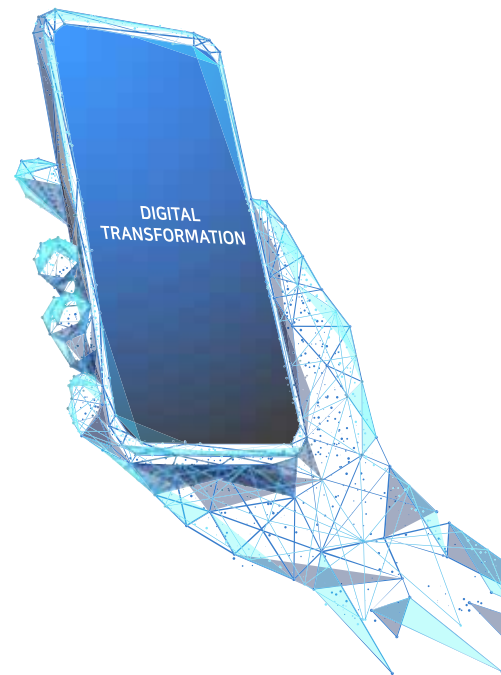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도 아직 모호한데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큰 파도가 채 빠져나가기 전에 다시 파도가 몰아치는 형국이다. 변화무쌍한 4차 산업혁명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용어 정리부터 해보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이후 DX)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다보스포럼에서는 ‘디지털 기술 및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고 사람과 데이터, 프로세스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IBM에서는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의 변화에 따른 개인, 기업, 정부, 사회, 문화 등의 총체적 변화를 아우른다면 DX는 그중에서도 기업의 경영 전략과 조직의 프로세스, 새로운 사업 모델, 고객과의 소통 등을 설명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지형을 보여주는 것이 DX이다.

* 디지털 리테일 컨설팅 그룹(digitalretail.co.kr)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앞서 사용되던 용어를 짚어보자. 먼저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ization)은 레코드판이나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된 음악을 CD로 옮기거나 만화책을 스캔해 파일로 만드는 것처럼 아날로그 기록을 디지털로 옮기는 것(Digitized)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대표적 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 CD 플레이어 대신 MP3플레이어와 아이튠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DX에서는 더 나아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골라 놓은 음악만이 아니라 좋아할 만한 음악을 추천하고 시간별로 다른 음악을 들려주며 이용자의 목소리에 반응하거나 음악 외의 리액션을 취하기도 한다. 기가지니, NUGU, 알렉사 등 스마트 스피커가 그 구체적 모습일 것이다. DX를 위해서는 고유의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전체 소비자의 빅데이터와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경험을 새롭게 넓혀준다는 데에서 DX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 INFORMATION

서점에서 클라우드로, 기성품에서 주문품으로

DX에 성공했거나, 실행하고 있는 기업을 떠올려보자. 가장 먼저 연상된 기업은 아마존일 것이다.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온라인 소매 유통 기업으로 규모를 키우고 이제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가 되었고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 까지 만든다.

“왜 우리는 아닌가.”, 즉 “우리도 한다!”를 공표한 제프리 이멜트의 GE는 어떤가. 2015년 이미 “2020년에는 전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산업용 인터넷 운영 플랫폼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IT 기업으로 변신했다. GE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물리적 제품에 부착된 센서로 정보를 수집하여 제품의 최적화를 돕는다. 세계 최대 제트 엔진 GE90에 실제로 적용된 디지털 트윈은 항공기 가동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서비스 점검 비용을 절감시켰다. 제조 공정에서의 DX는 스마트 팩토리로 나타난다. 아디다스는 개인의 신체 정보를 분석해 맞춤 운동화를 설계하고 생산은 3D 프린팅과 로봇의 자동화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스피드 팩토리를 만들어 주문한 지 5시간 만에 ‘자신만의 신발’을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했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DX에 의한 경제 사회적 부가가치의 창출 규모가 10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DX를 추진한 상위 25퍼센트의 선도 기업이 하위 25퍼센트의 후발 기업보다 3개년 평균 수치 기준으로 매출 총이익은 55퍼센트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은 DX와 생산의 스마트 팩토리라는 전환의 기점에 서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야 할 것이다.

** 『미래를 사는 기술 5G 시대가 온다』, ETRI 5G사업전략실 지음, 콘텐츠하다

기업은 DX와 생산의 스마트 팩토리라는 전환의 기점에 서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야 할 것이다.

DIGITAL
TRANSFORMATION

CULTURE GALLERY

보람차고 실속있게
건강하고 시원하게
즐겁고도 유식하게!
뜨겁지만 신나는 여름,
어느때보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은퇴 후 자격증, 무엇이 있을까?

은퇴 후 가장 좋은 노후대책은 일을 놓지 않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정년이 없는 일자리는 많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격증에 관심을 갖는다. 구직을 위해 청년들이 스펙을 쌓는 것만큼이나 은퇴를 앞둔 장년들 역시 자격증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것이다. 온라인 검색을 해 보면 다양한 자격증들이 쏟아져 나온다. 어떤 자격증이 유망하고, 또 어떤 자격증을 피해야 할까? 그리고 과연 내게 맞는 자격증은 무엇일까 미리 고민해 보자.

글 • 고상구

유망한 자격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장년 없는 평생 직장 원한다면? 지금 바로 주택관리사” “합격할 때까지 수강 보장!” “공동주택 증가로 일자리 증가” 등 광고에서 주택관리사를 쉽게 만나곤 한다. 그러나 과연 좋은 선택일까? 정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빈자리가 나기 쉽지 않다는 뜻이고 그마저도 인맥이 없으면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관리소장의 자리이다. 덧붙여 인기있는 자격증으로 추천되곤 하는 공인중개사는 어떤가. 요즘은 각종 부동산 앱이 등장하면서 노인들이 운영하는 복덕방 같은 부동산은 슬프게도 인기를 잃고 있다. 이처럼 현재 유망하다는 자격증들이 은퇴 후까지 그 기대에 부응하지는 미지수다. 그러면 무엇으로 나의 ‘자격’을 은퇴 후까지 증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힌트는 자신의 취향과 취미다.

취미를 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일이 없으면 사람이 쉬이 늙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늙어서까지 밥벌이만 하고 싶지는 않은 법. 은퇴 후엔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모두의 희망이다. 여기에 많지 않더라도 수입이 더해진다면 좀더 여유

로울 것이고 그 수입이 나의 취미에서 비롯된다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수입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취미를 연장해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늦은 공부에 대한 피로감도 덜할 것이다. 평소 목공이 취미인가? 그렇다면 목공DIY교육사 자격증을 추천한다.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에서 발급하는 목공DIY교육사 자격증은 도나 시에서 진행되는 DIY체험행사, 방과후 수업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각 지역 평생학습관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양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포천에 위치한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는 실습재료와 소모품 지원까지 해주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이라면 반려동물관리사는 어떨까? 반려동물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TV 예능에서도 반려동물은 악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까지 광고되고 있을 정도다. 반려동물의 증가는 관련 서비스업을 확장시킬 것이다. 이에 다양한 사설기관에서 반려견관리전문가, 반려동물재활트레이너,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등 세분화된 자격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만큼, 공인된 자격증이 아니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텃밭을 가꾸는 등 농업에 관심이 많다면 도시농업관리사를 알아보자.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 농업을 돕기 위해 관련 해설과 교육, 지도 및 기술 보급을 하는 사람이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의 학교 텃밭 운영강사나 사회복지시설의 텃밭관리 및 원예 치료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강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시행령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이기 때문에 취득 과정도 쉽지는 않다. 의지가 있다면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다.

봉사에 뜻을 둔다면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을 생각해 볼 만하다. 아직 본격적인 노년에 접어들기 전, 요양보호사로 연로한 분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노후에 대해 더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례지도사의 경우 죽은 이의 몸을 다뤄야 하므로 전문성이 더 요구되지만 장사대행업체에 거의 위탁하는 현재 장사 문화에서 취업이 좀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자신의 특징점에 따라 한자·한문지도사, 실천예절지도사, 관광안내해설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찾아보자.



무엇보다 이러한 자격증들을 수입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네트워킹이 큰 역할을 하므로 은퇴 전부터 강의를 수강하거나 봉사를 하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두길 권한다. 그 과정에서 듣는 정보와 연결된 인맥이 자격증을 만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은퇴 후 많지 않더라도 수입이 더해진다면 좀더 여유로울 것이고 그 수입이 나의 취미에서 비롯된다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자격증, 공신력 확인이 먼저다

자격증을 따기에 앞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격증의 공신력이다. 우리나라 자격제도에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있다. 국가자격은 관련 법령으로 국가가 관리하므로 자격증 발급 조건도 까다롭고 그만큼 자격증의 효용 가치도 높다. 민간자격은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자율적으로 신설, 등록할 수 있다. 법령으로 금지된 분야만 아니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공신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민간 자격을 최초로, 또는 유일하게 심사한 거쳐 국가에 등록하였음”이나 “00에서 인정한 자격증, 00로부터 자격 발급을 허가 받은 자격증”이라는 자격증 광고는 법의 제재를 받는 과장 광고다. 다만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등록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것이므로 좀더 신뢰도가 높다 하겠다.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종류와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자격의 모든 것(www.q-net.or.kr)’ 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 서비스(www.pqi.or.kr/indexMain.d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의 모든 것’



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 서비스’

사회초년생의 직장 매너 101

요즘 박 과장은 거래처에 전화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거래처에 신입직원이 들어왔는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숨 섞인 목소리로 “네에..” 하는 데다가 ‘꽝’ 소리를 내며 끊으니 황당해지곤 한다. ‘내가 곧대라 거슬리나?’ 싶다가도 ‘이건 아니지’ 싶은데 문제는 이런 직원이 같은 사무실에도 있다는 것. 말해 주자니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 불편한 박 과장을 대신해 사회초년생을 위한 직장생존예절을 준비해 본다.



전화, 명함 매너는 인상을 만든다

사무실 전화 받기, 명함 주고받기 등의 기본적 예절들은 사실 딱히 가르치는 데도 없어서 사회초년생들로서는 ‘상식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에는 억울할 수도 있다. 다행인 것은 몰라서 쌓이는 실수와 무례함들은 한 번 알고 나면 쉽게 없앨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박 과장을 황당하게 하는 신입직원의 전화 예절을 보자. “네에~”하고 받는 것은 상호를 수없이 바꿔 주문 전화를 받는 중국집에서나 들을 법한 대응이다. 사실, 중국집도 “네에~ 중국집입니다.”라고 받는다. 사회인이라면 “여보세요.”는 기본, 사무실에서는 “회사명, 부서명, 김OO입니다.”가 정석이다. 전화를 끊을 때는 먼저 건 쪽이나 뒷사람이 끊은 후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설사 상대가 먼저 끊은 상태라 하더라도 수화기는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내려놓자. 사무실에도 듣는 귀들이 많다.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 선 자세에서 인사를 하고 회사명과 이름을 밝히며 상대방 쪽으로 이름이 잘 보이도록 돌린 명함을 두 손으로 건넨다. 명함은 미리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아두거나 자갑 안에서도 찾기 쉬운 자리에 미리 옮겨 두자. 꺼내기 쉽도록 바지 뒷주머니에 명함을 넣어 놓는다? 끔찍한 실수다. 뜻밖의 체온과 땀을 느껴야 하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해 보자. 상대방의 명함은 두 손으로 받고 자세히 살펴본 후 수첩 옆에 두거나 명함집 안에 넣어둔다. 바로 넣어버리거나 깜박 잊고 두고 가는 것은 대단한 실례이다.



회사의 언어, 후배의 언어는 따로 있다

사회초년생은 궁금한 것이 많다. 그럴 땐 ‘왜’ 대신 ‘무슨’, ‘어떤’을 쓰자. “왜 그러는 데요?” 대신 “무슨 일 있으십니까?”, “최종하지만 어떤 상황이신가요?”가 질문의 격식을 만든다. 말을 걸 때는 불분명하게 “저...”, “저기요...”라고 하지 말고 “김 대리님”, “박 과장님”이라고 호칭을 정확하게 부른다. 상대가 자리에 와서 대화를 할 때는 가능하면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일어서는 게 좋다. 상사의 의견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땐 “팀장님, 그건 좀 그런데요” 보다는 “팀장님, 말씀하신 A 외에 B 방법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라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말하는 게 좋다.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혹은 거래처와 대화할 때도 반론에 대해서는 “그건 아닌데요”보다 “그렇군요”나 “그렇습니까?”로 상대의 입장을 긍정한 후 다시 의견을 교환한다. 패기는 예의와 병용해야 한다. 메신저에서 흔한 문자기호는 적절히 사용하자. ‘^^, ㅎㅎ’ 정도는 좋은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지만 안 그래도 밋상인 핑계를 댈 때나 만화가 되지 않는 실수에 덧붙이면 오히려 독이 된다.

Manners
makes
freshmen!



T.P.O.는 어디에나 적용된다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을 뜻하는 T.P.O.는 옷을 입을 때의 기본원칙을 나타낸다. 뜻밖의 장례식에 대비해 검은 넥타이와 검은 재킷을 준비해 두거나 몸 쓰는 일이 있는 날 타이트한 정장 등을 피하는 것은 상식. 단정한 모습은 필요하지만 단장하는 이면까지 드러내서는 안된다. 사무실 칸막이 안의 자기 자리라 해도 헤어롤을 머리에 달고 있다던가, 냄새 나는 구두약을 써가며 구두를 닦는 것은 눈살이 찌푸러지는 행동이다. 그런데 이 T.P.O.는 사실 어디에나 적용된다. 때와 장소에 따라 해야 할 말과 행동은 당연히 가려야 한다. 회식 장소에서는 즐거운 추임새가 회의 시간에는 엉뚱한 불발탄이 되듯, 12시 땡 치면 “점심 드시죠!”하며 명량한 점심시간을 만드는 막내가 6시가 되었다고 같은 톤으로 “퇴근 하시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타이밍과 장소, 상황은 말과 말씨, 행동, 표정을 적절하게 분별하기 위한 주요 기준이다. 이러한 T.P.O.의 ‘어디에나’는 상하고저도 포함한다.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상사와 선배, 사회인 모두가 T.P.O.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사회초년생 시절의 어법과 조심성을 견지한다면 곧 대의 길에 잘못 들어설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름의 디저트 아사삭 아이스

끈적한 여름날에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보다도 아사삭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아이스바가 더 끌린다.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 디저트는 하나만 먹기에는 아쉽지만 많이 먹자니 각종 첨가물과 칼로리가 걱정된다. 색소나 첨가물로 맛과 향을 낸 것이 아닌, 과일과 채소 본연의 맛과 색을 살린 아이스바라면 좀더 욕심 내도 되지 않을까? 맛도 좋고 칼로리도 낮은 아이스 디저트, 직접 만들어 보자.

자료 출처 · 여름에도 겨울에도 아사삭 아이스



한입에 쏙! 피치멜바

피치멜바(Peach Melba)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요리사 에스코피에가 멜바라는 가수를 위해 만든 디저트이다. 복숭아 콩포트와 라즈베리 소스가 어우러진 이 아이스 디저트를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것이다. 허브 아이스 불에 담으면 빙과가 녹는 것도 방지하고 예쁘고 시원하게 연출할 수 있다.

재료

15ml 용량의 아이스 트레이 21개 분량, 라즈베리 시럽(라즈베리 40g, 설탕 2큰술), 복숭아(백도) 2개, 레몬즙 1작은술, 플레인 요거트 100ml, 설탕 2큰술, 레몬 적당량

피치멜바 만들기

1. 레몬을 잘게 잘라 이쑤시개 끝에 꽂아둔다. (아이스바를 틀에서 뺄 때 이쑤시개와 아이스바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준다)
2. 라즈베리 시럽의 재료를 믹서에 넣어 갈고 차 거름망에 내려 씨를 제거한 다음 아이스 트레이의 각 칸에 1/3만 채워 넣는다.
3. 복숭아는 껍질을 벗기고 큼직하게 썰어 나머지 재료와 함께 믹서에 간다. 스푼으로 떠서 라즈베리 시럽이 담긴 아이스 트레이의 각 칸마다 90% 정도까지 채운다.
4. 3의 가운데에 1을 꽂은 다음 3시간 정도 얼린다. 실온에 잠깐 꺼내 두면 아이스 트레이를 비틀어서 쉽게 뺄 수 있다.



한입 아보카도 크림

‘숲 속의 버터’라 불리는 크림미한 아보카도는 익는 시기를 가능하기 어려워 가끔 처치 곤란일 때가 있다. 그럴 땐 푸레 상태로 만들어 얼려보자. ‘숲 속의 크림치즈 케이크’가 될 것이다. 크림 안에 숨어 있는 작은 레몬 조각은 마무리로 청량감을 더한다.

재료

- 1: 25ml 용량의 미니 머핀 틀 12개 분량, 레몬 조각 적당량
- 2: 잘 익은 아보카도 1개, 레몬즙 1작은술, 플레인 요거트 110ml, 메이플 시럽 90ml

한입 아보카도 크림 만들기

1. 이쑤시개 끝에 레몬조각을 끼운다.
2. 아보카도는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나머지 재료 2와 함께 곱게 간다.
3. 2를 스푼으로 떠서 틀의 90%까지 채우고 한가운데에 이쑤시개를 꽂아 3시간 정도 얼린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아사삭 아이스』

후쿠다 리카 지음, 이정연 옮김, 이끼박스

아이스 디저트의 더 많은 레시피를 『여름에도 겨울에도 아사삭 아이스』에서 만나자. 아이스바 외에도 얼린 재료를 곱게 간 스무디와 그라니타, 프라페, 수제 시럽을 등쪽 끼얹는 빙수 등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맛있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 디저트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키위 아이스 스틱

동남아시아의 친근한 거리 음식 스타일인 막대 모양 아이스바는 가위로 매듭만 자르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넉넉하게 만들어 두기도, 야외용 간식으로 보냉백에 넣기도 좋다. 생과일로 만들어 건강하게 즐기자.

재료

4 × 20cm인 식재료용 비닐봉지 12개 분량(1개=70ml), 잘 익은 키위 8개, 물 200ml, 레몬즙 2작은술, 설탕 3큰술

키위 아이스 스틱 만들기

1. 높이 10~15cm 정도의 빈 병을 준비한다.
2. 키위는 껍질을 벗기고 썰어 나머지 재료들과 함께 믹서에 간다. 키위의 씨가 으깨지면 쓴맛이 나므로 3초간 작동하다 멈추기를 반복하며 부드럽게 갈자.
3. 비닐봉지를 병 안에 세워 넣고 갈때기를 봉지 입구에 끼워 2를 2/3 높이까지 붓는다. 빈틈없이 채우고 단단히 매듭지어 묶는다.
4. 냉동실에 넣어 3시간 정도 얼린다. 가위로 매듭을 잘라 먹으면 편리하다.



휴식에 지식을 더하다

인문학 여행



바야흐로 휴양의 계절이 돌아왔다. 일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시간이다. 하지만 휴가지에서 에너지를 모두 쏟고 돌아오면 달라진 것 없는 일상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뭔가 남기는 여행은 어떨까? 사진과 추억에 지식까지 더해주는 인문학 여행이라면 완벽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인문학 여행이라고 딱딱하고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은 NO.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로 가득한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

자료 제공 · 하나투어(www.hanatour.com)

반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름 휴가로 유럽 여행을 계획한다면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인상주의 화가 반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 반 고흐 재단 방문으로 시작하여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들, 반 고흐의 집과 무덤, 고흐 미술관까지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할 수 있는 패키지 <빈센트 반 고흐 문화예술 9일>을 소개한다.

이 패키지는 프랑스 마르세유로 입국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국하는 코스로 반 고흐의 흔적들을 따라가는 동시에 아를 원형 경기장, 생트로핀 대성당, 퐁텐블로 숲 등 프랑스 관광지들 또한 둘러볼 수 있다. 남프랑스의 와이너리에서 프랑스 전통 음식과 와인을 맛보고 파리의 세느강에서 유람선을 타는 코스도 포함되어 있어 예술적 정취에 자연의 아름다움 또한 느낄 수 있다. 전 일정에 유럽 역사와 예술사에 해박한 전문 가이드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습 없이도 충실한 인문학 여행이 될 것이다.



왼쪽, 아를에 위치한 고흐 카페
오른쪽 위, 아를 대성당
오른쪽 아래, 오베르쉬르와즈에 있는 고흐 무덤



왼쪽, 상해 임시정부청사
오른쪽 위, 상해 옛거리
오른쪽 아래, 상해 외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상해 역사 기행

하나투어는 건축가, 사진작가, 영화평론가, 큐레이터, 산악인 등 전문가가 동행하여 일본, 러시아,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여행 현장에서 생생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테마 상품 '그랜드 투어'를 다양하게 출시했다. 그랜드 투어는 과거 영국 상류층 자제들이 가정교사를 동반해 언어와 예법, 학문을 배우며 여행한 것으로, 하나투어는 이를 모티브 삼아 여행에 전문 가이드북 혹은 현장 해설, 강의를 포함하여 참가자들에게 지식을 더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

그중 <스타강사 은동진과 함께하는 상해 살아있는 역사기행> 상품은 상해임시정부청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임시정부청사가 옮겨간 항주 등을 방문하며 현장 설명 외에도 세미나실에서 심도 깊은 강의를 제공해 역사의 뒷이야기가 지 들려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 상해 역사 기행은 더욱 특별한 여행이 될 것이다.

일본 예술을 따라 걷는 산책

쇼핑과 온천, 벚꽃놀이 외에도 일본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자. 근대 일본 미술을 주제로 한 아다치 미술관을 비롯하여 일본 최초의 서양 미술이 담긴 오히라 미술관, 도판 명화가 있는 오오츠카 미술관 등을 투어하는 <일본 3대 미술관 심층투어> 패키지는 일본의 미술 흐름과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하는 여행이 될 것이다.

아다치 미술관에는 근대 일본화를 부흥시킨 요코야마 다이칸의 작품을 비롯한 1,200~1,300여 점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의 정원은 미술관 그린 가이드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아름답다. 오히라 미술관은 서양화 중심 사립 미술관으로 고갱, 모네, 피카소 등 거장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오오츠카 미술관은 세계 최초의 도판 명화 미술관으로 서양 명화 1,000여 점을 원작과 동일한 크기로 복제, 전시했다. 각 미술관에서는 현지 큐레이터의 생생한 사진 설명을 가이드의 통역으로 들을 수 있어 작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고풍스런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라시키 미관지구 관광을 포함하여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 료칸 숙박과 가이세키 등의 다채로운 현지식, 오사카의 쇼핑관광까지 포함된 코스다.



위, 마네현 마쓰에 아다치 미술관
오른쪽, 오카야마현 구라시키 미관지구



마음도 거리도 더 가까운 국내 인문학 산책

국내 인문학 여행은 좀더 가볍게 다가가갈 수 있다. 거리도 가깝지만 우리의 예술가들이기에
심리적으로도 친숙하다. 그들의 옛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에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보는 건 어떨까.
당일치기 여행으로, 가벼운 산책으로 떠나는 문학 기행은 휴가를 더욱 여유롭게 해 줄 것이다.



조지훈 생가
사진제공 · 김지호_한국관광공사



허난설헌 기념관
사진제공 · 김지호_한국관광공사



길상사
사진제공 · 박성근_한국관광공사

청록파 시인 조지훈 생가

경상북도 영양에 가면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로 알려진 시인 조지훈이 나고 자란 주실마을에 가볼 수 있다.
시인 조지훈은 몰라도 '얇은 사 하이얀 고깔 고이 접어 나빌레라' 라는 그의 시구는 누구나 알만큼 그는 문학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조지훈 생가는 매방산에서 매를 날려 매가 앉은 자리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며 6·25 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63년에 복구되었다. 주실마을 입구에는 '빛을 찾아가는 길'이 새겨진 조지훈의 시비가 서 있고
인근에는 조지훈이 어렸을 때 공부했던 월록서당이 남아 있으니 둘러 보자.

강릉의 허난설헌 기념관

조선의 여류시인, 허난설헌 기념관이 강릉에 있다. 기념관은 허난설헌뿐 아니라 허씨 명문가의 '허씨5문장[허엽, 허
봉, 허초희(허난설헌), 허균, 허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기념관은 ㅁ자 형태의 한옥으로 안쪽엔 작은 마당이 있으며 목판 탁본을 체험하는 자리도 작게 마련되어 있다. 기
념관 밖에는 허씨 5문장의 시비를 비롯하여 초희 전통차 체험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 호젓한 분위기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허난설헌이 태어난 집터인 초당동 고택까지 함께 둘러 보자. 여행 전에 허난설헌의 시집을 읽어본
다면 더욱 깊은 감동이 느껴질 것이다.

서울 성북동 문학기행

훌륭한 문학 기행지가 서울에도 있다. 만해 한용운 시인의 거처로 알려진 심우장을 비롯하여 백석 시인의 연인으로
알려진 자야(본명 김영한)가 법정 스님에게 시주한 '길상사' 까지 있는 성북동이 바로 그곳.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이 말년에 거처했던 곳으로 당시 남향으로 집을 지었던 전통과는 달리 조선 총독부를 등지
기 위해 북향으로 지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만해 한용운은 10가지 수행 중 하나인 '내 안의 소를 찾는다'는 뜻의
심우라는 단어로 집의 이름을 붙였다.
길상사에서는 법정 스님의 의자와 라디오, 시계 등 『무소유』 속에 등장한 소품들과 다양한 공예품을 만날 수 있
다. 전통 한옥 형식의 사찰에서 스치는 바람과 함께 경치를 만끽해 보자.

N O R O O P E O P L E

NOROO의 컬러는
마음을 전하고
상징을 만들며
예술로 승화됩니다.
페인트에서 문화로
컬러의 스펙트럼을
더욱 넓히는 NOROO입니다.



NOROO의 ESSENCE,

세계를 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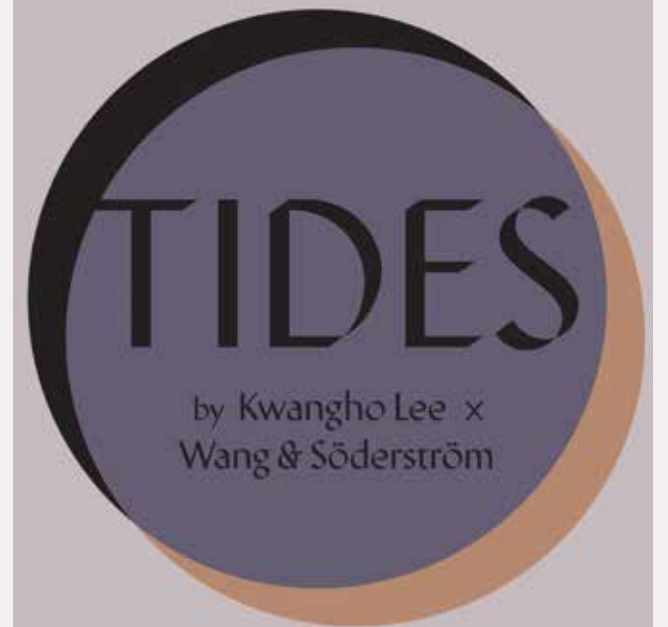
Milan Design Week 2019

지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19 밀라노 디자인 위크(Milan Design Week 2019)'에 NOROO 그룹이 참가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세계 최대 디자인 전시회이자 축제로 제품 디자인뿐 아니라 패션, 인테리어, 자동차, 전자와 I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자인 감각을 펼쳐 보이는 자리이다. 업계 최초로 참가한 NOROO 그룹의 전시는 '밀라노 TOP 전시'에 선정되는 등 현지의 관심을 모았다.

아름다움의 근원,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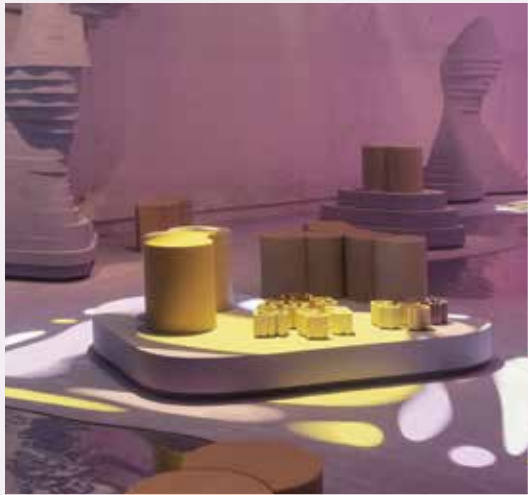
영국의 디자인 매거진 <월페이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토니 챔버스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흥미와 매력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 모든 형태의 창작 활동이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밀라노 디자인 위크를 설명한다. 그의 말처럼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는 기술과 패션, 예술 모든 것이 디자인과 결합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NOROO의 전시 <TIDES> 역시 예술을 품은 페인팅 공간으로 관람객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은 마치 풍경 속에 들어선 듯 기묘한 인상을 받게 된다. 분명 어디에도 없을 풍경이면서 굉장히 친숙하고도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거대한 동굴 같은 공간 저 멀리 월식인 듯 둥근달이 검게 빛나고 그 아래에는 썰물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바다를 담은 웅덩이가 달빛을 비춘다. 지층을 드러낸 거대한 기둥은 한때는 바다 속이었을 지형을 상상케 하고 곳곳에 놓인 스톨은 달의 변화를 반복해 보여준다. 노랑과 보라, 주황과 분홍, 파랑으로 일렁이며 변하는 조명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모든 것은 노루 페인트의 페인팅 위에 자리 잡았다.



밀라노 TOP 전시 <TIDES>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NCTS)에도 함께한 바 있는 한국의 이광호 작가와 북유럽의 유망한 작가 팀인 '왕 & 소더스트롬'이 작업한 <TIDES> 전시는 조류의 재현으로 관람객이 자연의 탄생과 아름다움의 근원을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 이 전시는 네덜란드 유명 건축잡지 <Frame>의 올해 '밀라노 TOP 전시'와 이태리 유명 인테리어 잡지 <D CASA>의 '놓쳐서는 안 될 전시 15'에도 선정되었다. 국내 디자인 전문 채널인 <디자인 프레스>는 벤추라 센트랄레에 열린 전시 중 가장 돋보인 전시로 꼽기도 했다.



조류(Tide)는 NOROO가 NCTS 2019에서부터 진행한 'ESSENCE'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테마로 컬러와 디자인의 기원을 생각하게 한다. 아름다운 컬러와 함께하는 삶의 변화를 전해온 NOROO의 일관된 디자인 & 문화 마케팅은 이번 전시를 통해 그간의 역량을 드러내었다.



TIDES

by Kwangho Lee x
Wang & Söderström



라이프 & 사이언스 기업 NOROO

조류(Tide)는 NOROO가 NCTS 2019에서부터 진행한 'ESSENCE'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테마로 컬러와 디자인의 기원을 생각하게 한다. 전시장의 인공 구조물은 컬러를 만드는 태양빛, 이를 반사해내는 달, 그리고 자연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인간의 관계를 자연스레 내보였다. 이 전시는 아름다운 컬러와 함께하는 삶의 변화를 고객에게 전해온 NOROO 그룹의 일관된 디자인 & 문화 마케팅이 그간의 역량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했다.

NOROO 그룹은 업계 최초로 컬러 디자인 영역을 개척,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창출해 왔다. 컬러 전문 조직인 NPCI(NOROO PANTONE COLOR INSTITUTE)를 구축하고 NCTS, 컬러 트렌드 북 『COVER ALL』 등 컬러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비자와 소통하고 시장을 성장시켰다. 세계적인 스트리트 아트 그룹 파우와우(POW!WOW!)와 협업하여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페인트 용기로 업계 최초의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NOROO 그룹 한원석 전무는 “도료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던 NOROO 그룹은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라이프 & 사이언스 기업’으로 인식되 고자 한다.”고 밝혔다.

NOROO 그룹은 2019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의 성공을 오는 NCTS 2020에서도 이어 고객의 삶에 꾸준히 예술적, 문화적 영감을 전파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감정은 컬러풀하다

NOROO × HAPPY INSIDE

㈜노루페인트는 전시기획사 하이아일랜드와 손잡고 컬러 콜라보레이션을 진행, 이색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전시인 <해피인사이드>를 용산전쟁기념관에 오픈했다. 다양한 시각적 조형물과 이모티콘으로 구성된 전시는 관람객에게 행복과 슬픔, 혼돈과 기쁨 등의 감정을 컬러로 확인하는 색다른 경험을 선물한다. 10월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 컬러풀한 감정 속 나만의 행복의 컬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아이들은 보물찾기를 하듯
벽 속에 숨은 해피 메시지를 찾아다니고,
예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은
양쪽으로 분홍과 노랑이 펼쳐지는
청록색 창틀에서 인생샷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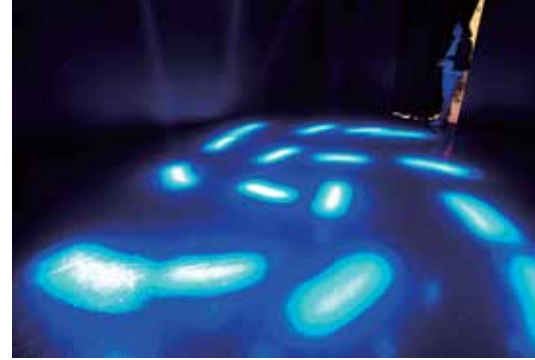
치유의 핑크, 행복의 옐로우

HAPPY라는 글자가 사방을 에워싼 입구는 분홍색 페인팅으로, 노란색의 이모티콘은 함박웃음으로 관람객을 반긴다. 마치 행복으로 가는 직진 코스에 들어선 기분. 엄마 손을 잡고 전시장에 들어선 꼬마들은 벌써부터 “와아~” 소리를 지르며 웃고 있는 이모티콘의 입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이들은 행복에 대한 직감이 빠르고 본능적이다.

이어지는 공간은 캔디핑크의 팬톤페인트로 달콤함이 가득 채워진 전철 안. 이 전철은 승객이 아닌 꿈을 싣고 달릴 것만 같다. ‘HAPPY INSIDE’ 글자로 만들어진 노선도의 역에는 SAD Town, SOSO Av, RESET Station 등이 표기되어 있다. 과연 다음 역은 어디일까? 각각의 공간은 커튼과 복도로 구분되어 있어 호기심을 자아낸다.

분홍색 복도를 지나 커튼을 여니 노랑이 마치 햇빛처럼 쏟아진다. 노란색으로 페인팅된 벽에 이모티콘이 붙은 부분을 살며시 눌러 열면 일상의 행복을 담은 글귀가 나타난다. 아이들은 보물찾기를 하듯 벽 속에 숨은 해피 메시지를 찾아다니고, 예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은 양쪽으로 분홍과 노랑이 펼쳐지는 청록색 창틀에서 인생샷을 찍었다. ‘일상의 행복’이란 표지판이 새삼 와닿는 순간이다.





일상에서 환희까지 컬러풀하게

전시는 감감한 어둠 속에서 이모티콘이 눈물을 흘리며 달리는 듯한 ‘어둠 속 행복’을 지나 레이저로 표현한 미디어 아트, 순백색의 방에서 수화기 너머 낮선 이의 독백을 듣는 퍼포먼스 아트를 통과해 ‘의외의 행복’과 ‘신나는 행복’, ‘사랑스러운 행복’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의 작은 바람과 상상을 유쾌하게 그려내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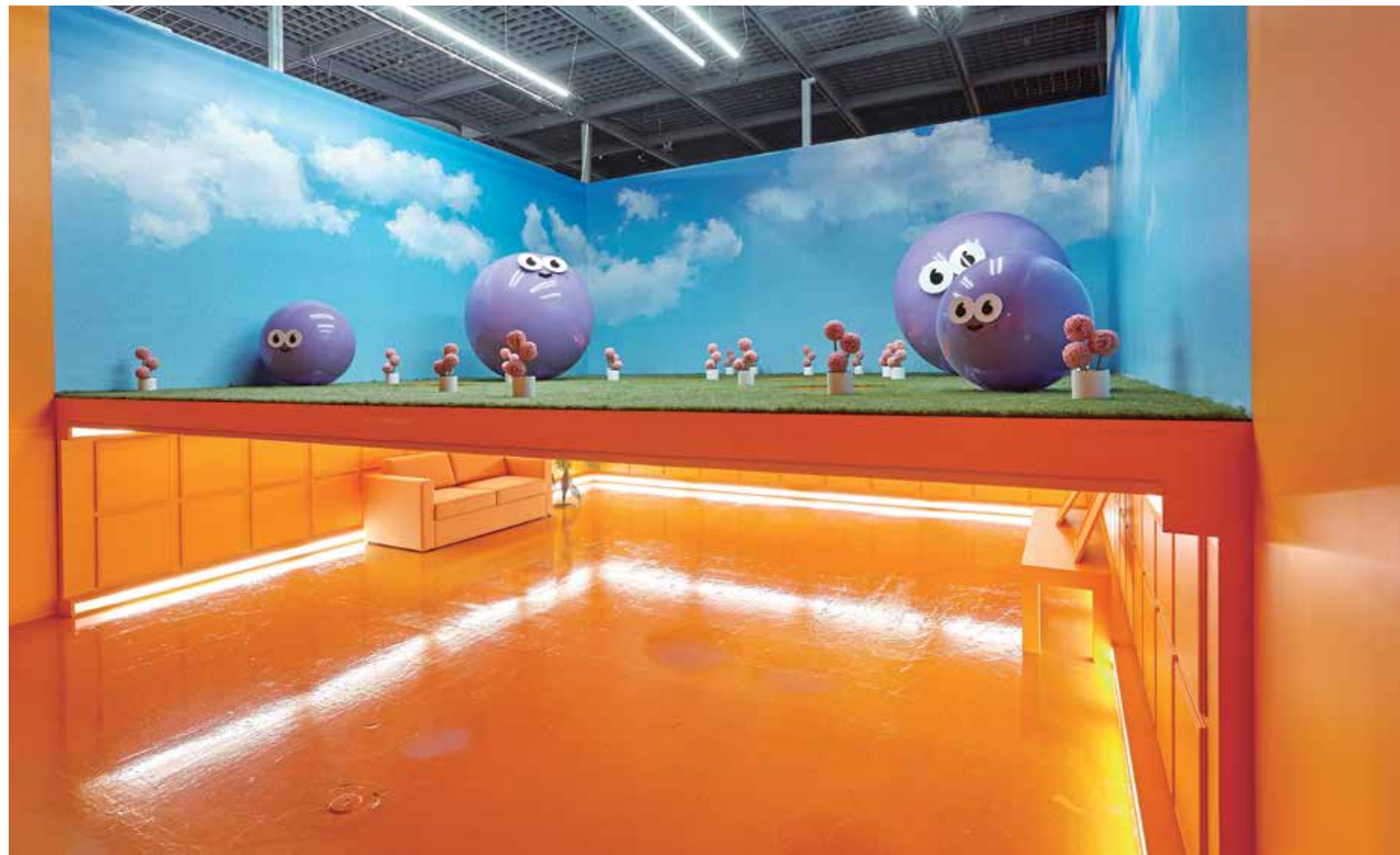
한 컷 만화는 작은 구멍으로 볼 수 있게 해 반전의 재미를 높였다. 이외에도 관람객들은 자전거 바퀴를 굴리며 반짝이는 빛을 만들고, 필력이는 풍선 인형과 함께 춤췄다. 볼풀에 풍덩 빠져보고, 난쟁이가 되어보고, 거대한 이모티콘 인형에게 안기며 다양한 감정을 만끽하고 수많은 사진을 찍었다. 사진에 담긴 모두 다른 얼굴의 배경이 되어준 것은 팬톤페인트의 선명한 컬러들이었다.

NOROO X HAPPY INSIDE

감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팬톤페인트

부드럽게 안아주는 듯 체온이 전해지는 아몬드 블라섬(Almond Blossom 13-2006)과 봄날의 바람이 느껴지는 체리 블라섬(Cherry Blossom 13-3207)의 핑크, 태양과 토양이 만나 이를 법한 캐롯 질(Carrot Curl 15-1262)의 선명한 오렌지색, 꽃 향기를 담은 라일락 쉬폰(Lilac Chiffon 15-2913)의 연보라색 등 팬톤페인트의 고채도 컬러는 <일상-혼돈-탈출-기쁨-환희>라는 5가지 테마의 부스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사진 촬영에 최적의 공간을 완성했다. 노루페인트의 에폭시 바닥재인 크린폭시 3100은 깔끔하고 안전한 바닥을 만들어 주었다. 각 컬러는 팬톤사의 2019 트렌드 컬러를 바탕으로 노루페인트와 ‘아트오브서영’의 박서영 감독, 하이아일랜드 팀의 콜라보를 통해 기획되었으며 ‘팬톤 올해의 컬러’인 리빙코랄을 사용하여 자연을 연출한 홍보존은 관람객에게 노루페인트의 컬러 감각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이번 행사의 주최사 측은 “컬러 전문기업 노루의 팬톤페인트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어 이번 전시회가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시는 얼리버드 티켓이 2차까지 매진되고 SNS에서 인증샷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감각과 마음을 열어 일상을 바라보게 하는 전시와 일상의 감정을 선명한 컬러들로 드러낸 팬톤페인트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닐까. <해피인사이드>에서 내 마음의 컬러를 확인해 보자.



온도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고

㈜기반테크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

매해 폭염으로 인한 농촌 지역의 피해가 커지면서 ㈜기반테크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의 수요가 늘고 있다.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는 시설 하우스나 축사 지붕에 뿌려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차열 페인트로 도포형이라 간단할 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지속성과 친환경성까지 갖춘 똑똑한 제품이다. 일찍이 에너지 차광제를 적용해 그 효과를 톡톡이 누리고 있는 천안의 세운농장을 찾아가 제품의 장점을 직접 확인해 보았다.

빛을 차단해 내부 온도를 낮춘다

세운농장을 찾은 시각은 오전 10시 반. 햇살이 점점 열기를 높이는 시각이다. 기상 안내에 따르면 대기 온도는 섭씨 27도 정도였지만 따가운 직사광선을 받아 땅에서는 벌써 후덥지근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바깥이 이런데 하우스 안은 얼마나 더울까?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우스의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내부 공기는 오히려 선선했다. 세운농장에서 작물의 연구 및 실증을 진행하는 상명대학교 식물식품공학과 김영식 교수와 (주)기반테크 국내사업팀 이정민 대리는 “그게 바로 차광제의 효과”라고 말한다. “이 정도 바깥 온도라면 하우스 온도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차광제 덕분에 이렇게 쾌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환기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설명과 함께 김영식 교수는 하우스 내부를 가리켰다. “보시면 빛이 골고루 은은하게 퍼져 있죠.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가 태양의 직달광을 일정량 차단하고, 투과되는 것은 산란광으로 만들어서 그림자가 없고 작물의 윗잎과 아랫잎 모두 적정량의 빛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는 시설 하우스나 축사 지붕에 뿌려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차열 페인트로 도포형이라 간단할 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지속성과 친환경성까지 갖춘 똑똑한 제품이다.



균일한 광량으로 생육을 돕다

직사광선이 과도해도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차광제 덕에 광량이 균일해지면서 광합성이 활발해진다. 온도가 낮아지니 습도가 적정선으로 높아진다. 사람이 작업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제거되어 편리한 데다가 생분해성 소재라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 비용이 든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비용 대비 효과는 월등하다.

“기존의 차광막과 비교해 봐도 훨씬 경제적입니다. 차광막은 제거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데다가 바람에 찢기며 대형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쓰레기 문제도 있고요. 차광제는 전분 등이 주성분이라 친환경적이고 희석 비율로 차광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는 외국 제품에 비해 30% 이상 저렴합니다.” 이정민 대리의 말에 김영식 교수는 “40~50% 이상 더 저렴하다고 봐도 된다.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는 기본 농도가 진해 희석했을 때 더 넓은 면적을 도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칭찬하며 외국 제품과 가시적인 효과는 다르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영식 교수가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의 출시부터 함께하며 애용해 오고 있는 데는 이런 특징점들이 있었던 것이다.

혹서기의 피해를 줄이다

작년 여름 경기도에서만 폭염으로 가금류 134만 마리가 폐사했다. 과수와 특작, 시설원에 등 전체 농가의 70%가 폭염의 피해를 입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온열질환 사망자 중 비닐하우스 등 농업 현장에서 사망한 비율은 절반에 가깝다. 차광제는 이러한 안타까운 피해를 줄이는 대안 중 하나다.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는 축사용으로도 출시됩니다. 주로 판넬인 축사 지붕은 한여름에는 70~8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실험 결과 63도였던 지붕이 저희 차광제 도포 후 39도로 극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실내온도는 3~5도 하강했고요.” 이정민 대리는 이러한 효과 덕에 폭염이 닥치는 7~8월 이면 문의가 치솟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 3~4개월 유지되는 제품의 효과를 고려하면 혹서기보다는 앞서 5~6월에 도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농촌진흥청과 (주)노루페인트에 의해 시설하우스용 차광제가 개발된 것은 2011년, 그리고 기반테크가 이를 본격적으로 출시한 것은 2016년이다.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는 보수적인 농산업 시장에서 차광제의 필요성을 빠르게 인식시키며 혹서기를 대비하는 필수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차광제는 전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온기 피해를 예방하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보조사업으로 적극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중국에 수출이 진행되는 등, 더 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세계 농산업이 IoT로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기반테크의 기술 개발과 보급은 향후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노루 그룹의 기술력과 다양한 아이템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테크가 되길 바랍니다.”라는 김영식 교수의 바람이 현실이 되어갈 연대표 속에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가 있다.



에너지 세이버 차광제는 보수적인 농산업 시장에서 차광제의 필요성을 빠르게 인식시키며 혹서기를 대비하는 필수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잔의 DIY 나를 위한 칵테일



칼라메이트(췌) 모바일사업팀 김동식 과장과 친구 강세경 씨

영롱한 초록부터 불타는 레드까지, 칵테일은 다양한 색과 맛을 지닌다. 주문 후에 제조되기 때문에 바텐더에 따라 맛도 미묘하게 달라지곤 한다. 그 말인즉슨 내 입맛에 꼭 맞는 칵테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취향에 따라 당도와 알콜 도수를 조절할 수도, 향을 덜 내거나 더 낼 수도 있는 칵테일 DIY에 칼라메이트(췌) 모바일사업팀 김동식 과장이 친구 강세경 씨와 함께 도전했다.

쿠바 리브레로 만세!

“자, 오늘은 여름용 칵테일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김동식 과장과 강세경 씨가 자리에 앉아 준비를 마치자 스피닝 울프의 노양석 바텐더는 바로 본론에 들어갔다. 이미 두 사람 앞에는 원목 도마와 다양한 잔, 셰이커, 지저라고 불리는 계량컵 등이 가지런히 세팅되어 있었다.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은 쿠바 리브레. “리브레는 만세라는 뜻입니다. 이 술에는 북미의 상징인 콜라와 남미의 상징인 럼이 들어가요. 럼은 한국의 소주처럼 대중적인 술로 흔히 영화 속 해적들이 허리춤에 꽂고 다니는 게 럼이죠.” 노양석 바텐더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럼을 잔에 부어 보였다. “술병 입구에 꽂혀 있는 것은 ‘푸어러’ 라고 합니다. 계량컵인 ‘지저’ 나 일반적인 양주잔인 ‘샷잔’을 이용해도 되지만 푸어러를 이용해 부으면 초를 재면서 양을 대략 맞출 수 있어요. 약 2초 정도면 30ml가 될 겁니다.”

설명 끝에 건넨진 럼주를 쥐고 김동식 과장은 자연스럽게 푸어러로 잔을 채웠다. 얼음을 가득 넣고 칼로 라임을 써는 것까지 주저함이나 머뭇거림 없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몸짓에 칭찬도 이어졌다. 그제서야 조금은 긴장되었던 김동식 과장의 얼굴에 쑥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라임 즙을 짜 넣고 콜라를 채우면 쿠바 리브레 완성! 맛을 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 스르륵 미묘한 웃음이 스민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직접 만든 거니까요!” 노양석 바텐더의 농담에 웃음이 더욱 커져 버린다. 칵테일 한 잔에 흥이 시작되었다.



알콜에 약한 이들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게 칵테일이다.
함께 칵테일을 즐겼으면 하는
김동식 과장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칵테일을 만들어 맛보았다.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입맛대로 칵테일

“저는 술을 즐기는 편인데 칵테일은 잘 몰라서요.” 참가 계기에 대한 김동식 과장의 답이다. 함께한 강세경 씨가 술을 잘 못하는 것도 동기가 되었다. “알콜에 약한 이들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게 칵테일 아닐까요?” 함께 즐겼으면 하는 김동식 과장의 바람대로 강세경 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칵테일을 만들어 맛보았다. 두 번째 칵테일인 다이쿼리에는 좋아하는 라임 즙을 듬뿍 넣었다. 착즙기로 즙을 짜내는 것은 팔뚝 힘을 자랑하는 김동식 과장이 맡았다.

“다이쿼리는 헤밍웨이가 좋아했던 술입니다. 칵테일은 주로 쓴맛, 신맛, 단맛으로 이뤄지는데 쓴맛은 술, 신맛은 과일즙이나 주스류, 단맛은 설탕이나 시럽으로 내죠. 다이쿼리에는 럼과 라임 즙,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명을 들으며 맛본 다이쿼리의 상큼한 맛에 강세경 씨의 눈이 반짝 빛났다.

이어서 만든 모히토도 설탕과 라임, 럼이 들어가는 건 같지만 라임을 으깨어 넣고 민트 잎을 추가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럼이 없으면 소주를 넣어도 된다. 있는 대로, 입맛대로 만들 수 있어 즐거운 것이 칵테일이다.



여름밤의 갈증을 채우다

예정되었던 세 잔의 칵테일을 다 만들고도 노양석 바텐더는 보드카와 진저에일, 라임으로 만드는 깔끔한 맛의 모스코물과 복숭아 향의 리큐르와 베일리스, 붉은 그레나딘 시럽을 이용해 그로테스크하게 연출하는 몽키 브레인을 소개했다. ‘모스크바의 당나귀’라는 의미의 모스코물은 노양석 바텐더가 제일 좋아한다는 칵테일. 강세경 씨도 오늘의 칵테일로 이것을 꼽았다. 다양한 술을 만들고 맛보느라 불이 발그레해진 강세경 씨와 김동식 과장은 “새로운 시도였고, 멋진 경험이었다.”며 클래스를 마무리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정치깡패 역을 맡은 이병헌의 대사 중 “모히토 가서 몰디브 한 잔”은 두고두고 유행어가 되었다. 거칠고 험한, 더럽고 추악한 영화 속 현실에서 모히토와 몰디브는 환상과 갈망의 상징과도 같았다. 몰디브까지 가긴 어렵겠지만 한 잔의 모히토는 여름밤의 갈증 정도를 채워 주기는 충분할 것이다.



스피닝 울프

술, 음악, 음식은 물론 재미있는 건 뭐든지 한다는 컨셉의 재미 편집샵 스피닝 울프 성수점은 제주에 이은 두 번째 매장이다. 넓고 세련된 메인 홀 옆으로 중후하고 아늑한 공간이 이어지고 시원한 루프탑까지 갖춰 파티는 물론 작은 세미나 등에도 어울린다. 스피닝 울프에서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클래스를 선보이는데 특히 칵테일 클래스는 집에서 다시 만들어볼 수 있는 칵테일 키트를 증정하여 인기가 높다.

연락처 : (02)465-0884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7길 11, 11층



가족이 다 함께 NOROO와 힘차게

광주노루페인트㈜

“베란다를 칠할 건데요.”, “타일용 페인트 있어요?”, “방 하나는 페인트가 얼마나 필요하죠?” 어느 날의 오후, 어느 때처럼 광주노루페인트 주식회사(광주페인트방수백화점/이하 광주노루페인트) 매장에서는 고객의 질문이 이어졌다. 정정하 실장은 하나하나 자세히 답하며 이어지는 컬러 고민까지 해결해 줬다. 단답형으로 끝나는 설명이 아니라 응대 시간은 길어지기 마련. 그 시간만큼 고객의 신뢰가 쌓이고 유대가 깊어진다. 이것이 광주노루페인트의 성장 노하우이다.

노루페인트의 기술에 반하다

정덕환 대표가 시작한 가게는 페인트 대리점이 아니었다. 처음엔 접착제 종류인 수용성 무기질 방수 제품의 지역 총판을 했다. 그런데 방수 공사를 하며 (주)노루페인트의 방수 페인트가 하자가 없을 뿐더러 내구성도 뛰어난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직접 노루페인트의 우레탄 방수 도료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2007년에 노루페인트 간판을 다셨어요.”

정정하 실장의 말에 어머니인 하영희 이사가 설명을 이었다. “당시에 경쟁사 페인트 대리점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 제품으로 공사하는 중에 하자가 생겼는데 대리점 사장이 원인을 설명 못하더라고요. 노루페인트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광주노루페인트는 서서히 규모가 불기 시작했다. 직접 방수 공사를 해온 정덕환 대표가 시공 방법을 꼼꼼히 교육시켜 주니 고객들은 믿고 다시 찾았다. 부부는 새벽 6시 반에 문을 열고 명절 당일 외에는 쉬는 날 없이 업자와 고객의 편의를 살폈다. 늦은 밤에도 급한 문의에 제품을 내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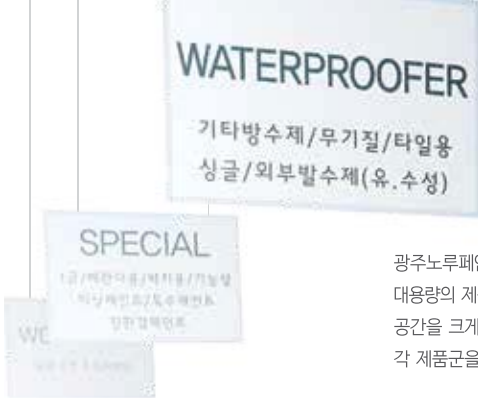
미술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 중이기도 한 정 실장은 최근 페인트와 수지를 이용하여 작품 활동을 했다.



가족의 힘을 모으다

사업이 점점 커지자 딸인 정 실장도 합류했다. 직접 도장공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페인트를 공부하고 노루페인트의 하우홈인테리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담과 시공을 함께 진행했다. 정 실장은 컬러 감각이 뛰어나 고객 상담의 만족도를 더욱 높인다. 미술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 중이기도 한 정 실장은 최근 페인트와 수지를 이용하여 작품 활동을 했다. 재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고객에게 전할 지식도 많아졌다. 한 시간이 훌쩍 넘도록 꼼꼼히 상담해 주니 재방문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벽지 한 번 칠하면 다음에는 문 칠하러 오시고, 시골집 칠하러 오시고, 방수하러, 이사하고, 집 사서... 이런 식으로 고객께서 꾸준히 찾아오십니다. 십몇 년 거래하는 단골들도 적지 않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도 힘을 보탰다. “다양한 신제품을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완공하는 것 또한 무척 보람 있다.”고 말하는 정화성 과장과 함께 든든한 가족 기업이 완성되었다.



광주노루페인트의 매장은 대용량의 제품과 소용량 및 DIY 제품으로 공간을 크게 양분하고 팻말을 달아 각 제품군을 소개한다.

모두가 찾는 전문매장을 만들다

광주노루페인트의 매장은 넓고 쾌적한 것이 특징이다. 정 실장은 시공업자를 위한 대용량의 제품과 일반 소비자를 위한 소용량 및 DIY 제품으로 공간을 크게 양분하고 팻말을 달아 각 제품군을 소개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편하게 쇼핑하고, 업자들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정 실장이 추구하는 매장의 모습이다.

“전문매장답게 가꿔가는 게 뿌듯해요. 고우리 대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소개해 주시는 대로 다 들여놓았죠.”라며 미소를 띠는 정 실장의 말에 노루페인트 광주지점 고우리 대리가 답한다. “초기에는 기본적인 제품만 있었어요. 정 실장님께서 의욕을 내시면서 제품을 더 늘리시고 가족이 함께 매장을 키우셨죠. 앞으로 판매도 크게 늘어나리라 기대합니다.” 정 실장은 매출을 키우기 위해 페인트에 관한 모든 것을 매장에 구비할 계획이다. “‘다른 곳 갈 필요 없다. 이곳에 가면 다 있다.’라는 인식을 고객께 심어드리고 싶어요.” 정 실장의 다부진 계획에 동생인 정 과장도 각오를 보탰다. “앞으로의 목표는 전국 1등입니다. 매출 전국 1등!”

고객에게 헌신하는 정덕환 대표와 하영희 이사, 섬세한 컬러 감각과 명민한 판단력의 정정하 실장, 뚜렷한 목표와 실행력을 지닌 정화성 과장으로 이루어진 이 가족의 에너지라면 불가능한 목표만은 아닐 것이다. 노루페인트의 기술력과 광주노루페인트의 열정이 단단히 결합해 이루어낼 내일이 기대된다.





노루페인트 진명호 대표,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



노루페인트, 부산시와 '하안지붕 설치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노루페인트, 동대문구 마을길 벽화로 셉테드 활동



노루페인트, 실내환경 개선용 기능성 페인트 2종 출시

(주)노루페인트

노루페인트 진명호 대표,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

노루페인트 진명호 대표는 5월 31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19년 한국품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19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은 국내 산업 발전과 품질경영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공헌한 바가 큰 경영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품질경영학회 학회장이 위촉한 포상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이사회 인준을 거쳐 선정한다. 노루페인트 진명호 대표는 선도적 품질경영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진 품질토코소에서 진명호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품질경영 활동을 강화해 가는 데 있어 ‘소비자와 기업 상생을 통한 품질력 강화, 글로벌 경쟁에 따른 투자활성화와 전면적 체질개선, 스마트 팩토리와 품질 혁신을 통한 기업 브랜드 강화’의 세 가지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명호 대표는 “품질경쟁력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 고

객 감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부산시와 ‘하안지붕 설치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지난 5월 13일, 부산시는 노루페인트,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기부 사업인 ‘하안지붕 설치 지원 사업’의 추진에 나섰다.

‘하안지붕 설치 지원 사업’이란 기존의 주거용 건물의 지붕을 하얗게 칠해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며 저탄소 녹색건축을 실현하는 민간 협업사업이다.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 효과가 큰 밝은 색(흰색 계열) 도료를 칠하면 지붕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감소시켜 실내 온도가 4~5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 여름철 냉방 에너지도 절약된다. 이번 사업에 노루페인트는 차열 특수 페인트 등 시공 재료를 지원하고 부산시건축사회는 시공을 맡는다. 부산시는 사업대상지로 2개구(중구, 사하구)의 폭염 취약 주택 22개 동을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시공에 착수,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노루페인트와 부산시건축사회의 적극적인 재원·재능기부로 민관이 소통하고 협업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하안지붕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부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대문구 마을길 벽화로 셉테드 활동

노루페인트가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와 함께 동대문구 배봉산 연육교 앞 옹벽에 ‘우리마을 작은 셉테드-벽화 그리기 사업’을 4월 20일 실시했다. 셉테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줄임말로 환경을 바꿔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삭막한 옹벽에 벽화를 그려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서울준법지원센터가 기획·주관하고 (사)전국자원봉사연맹과 노루페인트, 비영리봉사단체인 네오맨벽화사업단이 후원하며 휘경2동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추진되었다. 벽화의 도안은 세종대왕 기념관, 중랑천 뱃꽃길 등 동대문구 12명소를 주제로 구성하였고 관내의 중고생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휘경2동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주민, 동대문구의원, 서울준법지원센터 준법지원자문위원 및 직원 등 총 120여 명이 직접 벽화 페인팅에 참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배봉산과 중랑천 뱃꽃길로 이어지는 길목의 화색 시멘트벽이 핑크색 페인트로 단장되어 산뜻하고 화사한 모습으로 변모하면서 인근 둘레길에 정취를 더하게 되었다.

노루페인트, 실내환경 개선용 기능성 페인트 2종 출시

노루페인트는 습기에도 도장이 가능하며 향균, 항곰팡이 기능을 갖춘 신개념 페인트 순&수 워터가드와 라돈가스 유입을 저감시키는 순&수 라돈가드를 출시하여 팬톤에어프레쉬와 함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성 3대 제품으로 내부 수성페인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다.

기존에 출시한 팬톤에어프레쉬는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시험 결과 일반 수성페인트 대비 11배 이상의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흡착율을 보여주어 실내 공기질 개선의 효과를 입증했다. 팬톤에어프레쉬는 친환경 인증마크와 향균 마크를 인증받은 페인트로,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권장 기준의 하나인 흡착 건축자재의 성능 평가 기준을 획득하기도 했다.

팬톤에어프레쉬가 이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제거한다면, 이번에 출시한 순&수 워터가드와 순&수 라돈가드는 유해 물질의 방출을 막아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습기 없이 완전히 건조된 면에만 도장이 가능하지만 순&수 워터가드는 빠른 건조로 습기가 있는 면에도 도장할 수 있는 신개념의 페인트로,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습기나 외부에서 침투되는 습기를 방어하여 벽면을 보호해 주며 향균, 항곰팡이 기능까지 있어 집안에 습기나 곰팡이 걱정을 없애주는 기능성 수성페인트이다.



노루코일코팅 노조 창립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이와 더불어 순&수 라돈가드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라돈의 방출을 차단해 준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자연 방사선 물질로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대리석 등에서도 검출되는 등 생활 환경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과 같은 건축 자재의 크랙을 통해 라돈 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데 순&수 라돈가드는 높은 탄성으로 크랙에 저항성이 있어 라돈 가스의 방출을 낮춰줄 뿐 아니라 저온에서도 신장률(유연성)이 좋아 겨울철에도 쉽게 갈라지지 않는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단순히 공해 방지나 친환경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환경 개선 차원에서 출시한 3대 제품은 모두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하여 개발하였다. 이 기능성 페인트들은 각종 실내 방어막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노루코일코팅

노루코일코팅 노조 창립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노루코일코팅은 노조 창립 1주년(5월 14일)을 맞아 5월 9일에 포항 공장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다. 박민래 노루코일코팅 노조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노동조합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모범 조합원 표창과 노루케미칼, 노루비케미칼, 노루오코토팅 위원장의 격려사, 노루코일코팅 이한복 대표이사의 축하 등으로 이어졌으며 1주년을 맞아 노조의 위상과 조합원들의 결집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

더기반의 ‘보람찬꿀 참외’, 참외 품평회에서 대상 수상

참외의 고장 경북 성주에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19 성주



더기반의 ‘보람찬꿀 참외’, 참외 품평회에서 대상 수상

생명문화축제 & 성주참외페스티벌에서 박병우 농민이 더기반의 보람찬꿀 참외를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성주생명문화축제 & 성주참외페스티벌은 성주군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참외의 고장 성주를 알리고 발전시키자는 취지 아래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진행된다. 그중 우수 재배농가를 선정하는 참외 품평회는 페스티벌의 주요 행사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참외 관련 전문 심사위원을 위촉해 1차와 2차의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 1차 심사에서는 심사위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전반적인 재배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며 2차에서는 참외의 모양과 색택, 식감, 맛, 당도 등 상품성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체크한다. 대한민국 참외의 대표주자인 성주참외의 자부심과 우수성을 상징할 참외 재배 농가를 뽑는 것이기에 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된다.

영예의 대상 수상자는 바로 더기반의 보람찬꿀 참외를 재배한 성주읍의 박병우 농민으로, 박 씨는 “보람찬꿀 참외가 재배 관리도 용이하고 과색 및 식감, 당도, 연속착과성, 수확량 등이 우수해 다른 품종에 비해 재배가 편하다.”라고 평했다.

보람찬꿀 참외의 대상 수상과 함께 초전면 정신영 농민은 알찬꿀 참외로 은상을, 바른꿀, 보람찬꿀, 알찬꿀 참외를 재배한 초전면 정우철, 김해규, 용암면 조양식 농민은 동상을 수상하는 등 더기반의 참외 품종으로 5명이나 수상함으로써 이번 품평회는 참외 품종 육성



노루기반에서 기반테크로 사명 변경

에서 더기반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기반 최규설 대표는 “앞으로도 성주참외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수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보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기반테크

노루기반에서 기반테크로 사명 변경

4월 15일, 노루기반은 이사회를 통해 사명을 주식회사 기반테크로 변경하였다. 이는 농생명 사업 분야의 브랜드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사업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명 변경을 새로운 변곡점으로 삼아 기반테크는 농생명 하이테크 사업 분야에서 신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더 큰 도약을 이뤄갈 계획이다. 사명 변경에 따라 기존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kibantech.co.kr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장의 주소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은 전과 동일하다.

여름철 냄새와의 전쟁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에는 각종 냄새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 덜 마른 빨래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신발을 벗을 때 숨을 참게 하는 역한 발 냄새, 쓰레기통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쉰내 등 냄새를 줄려면 부지런해지는 수밖에 없다. 적재적소에 베이킹소다, 탈취제 등의 무기를 써서 냄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Tip.1 | 쓰레기에는 베이킹소다와 알콜

여름철이면 음식물 쓰레기통은 물론 일반 쓰레기통에서도 쉬이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덜 찬 쓰레기봉투를 바로 버릴 수도 없는 법. 가능하면 작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 자주 버리고, 냄새 나는 쓰레기 위에는 베이킹소다를 뿌려준다. 쓰레기 봉투 하단에 신문지를 미리 넣어 물기를 흡수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싱크대 주변은 물과 소주 혹은 알콜을 3:1 비율로 섞어 스프레이해 주면 악취와 초파리를 막을 수 있다. 스프레이 시에는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Tip.2 | 발은 식초나 소금물로

발 냄새는 그냥 땀 냄새만이 아니라 발에 서식하는 세균의 부산물인 이소발레릭산 냄새다. 식초나 소금을 탄 물에 1~2주 동안 매일 20~30분씩 담그기를 계속하면 발의 세균을 줄일 수 있다. 양말은 가능한 면직물로 된 것을 골라야 땀 흡수에 좋다. 집에 돌아와서는 신발에 냄새 탈취 스프레이나 파우더를 뿌려준다. 말린 커피가루를 안 신는 양말에 담아 넣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발과 함께 겨드랑이도 여름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겨드랑이에 땀이 차지 않게 하려면 가능한 헐렁하게 입거나 겨드랑 패치를 옷에 부착해 땀 흡수를 보조해 준다. 땀과 냄새를 억제해 주는 파우더나 스틱 데오드란트 사용도 습관화하자. 사용 후 샤워 시 꼼꼼하게 잔여물을 씻어내도록 한다. 몸 냄새를 없애는 방법 중 하나는 운동이다. 40세가 지나면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노인성 냄새가 날 수 있다. 전문가는 운동을 통해 산화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어야 노년성 냄새의 원인물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운동 후의 샤워는 기본이다.

Tip.3 | 빨래는 삶고 말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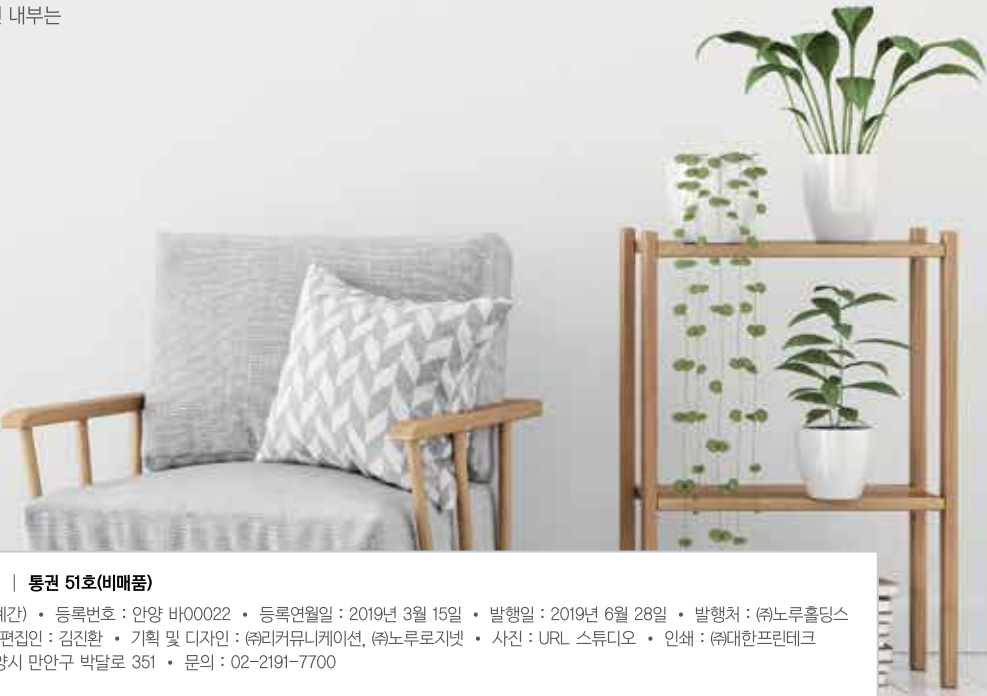
냄새는 습기와 함께 온다. 샤워가 잦아지는 때에 빨래통에 커커이 젖은 수건이 쌓인다면 냄새는 피할 수 없다. 바로 세탁이 어렵다면 펼쳐 말렸다가 빨아야 세탁 후에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수건 등 면직물은 삶아 빼는 게 확실한 냄새 제거를 돕는다. 빨래 시 세제 대신 베이킹 소다를, 섬유유연제 대신 식초나 구연산을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건조기나 선풍기를 이용해 빨래를 완전히 말리고 다림질할 때 스프레이에 향수를 1~2방울 넣어 다려보자. 체취와 땀 냄새를 다소 가릴 수 있다.



〈해피인사이드〉의 전시장에서 만나 더욱 반가운 NOROO의 홍보 존입니다. 팬톤 율해의 컬러인 리빙 코랄과 함께 자연의 테마로 꾸며진 내부는 그야말로 ‘해피 인사이드’ 랍니다.



스페셜 테마의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밝혀 주신 메타넷글로벌의 이태진 선생님께서서는 환한 웃음으로 주변까지 밝혀 주셨습니다. 멋진 사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OROO

NOROO 그룹 사보 | 통권 51호(비매품)

증별 : 정보간행물(계간) • 등록번호 : 안양 바00022 • 등록연월일 : 2019년 3월 15일 • 발행일 : 2019년 6월 28일 • 발행처 : ㈜노루홀딩스
발행인 : 김동환 • 편집인 : 김진환 • 기획 및 디자인 : ㈜리커뮤니케이션, ㈜노루로지넷 • 사진 : URL 스튜디오 • 인쇄 : ㈜대한프린테크
발행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 문의 : 02-2191-7700